

은행권, 소상공 창업·폐업·재기 '맞춤처방'...만족도 94.3점



작년 4월부터 전국 800여명에 공동 컨설팅 성과공유회...사례집 배포·하반기 추가사업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AI·코딩 교육을 제공 해온 북부예뵈랩 A대표는 안정적인 창업 모델을 고민하다 은행연합회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10년 이상의 우수한 AI·SW 미래교육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 강의 중심의 프리랜서 경력 확장에 한계를 느꼈다. 수익 대비 세금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을 안고 있었다.

컨설팅은 교육서비스업 사업자 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등에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수수

수 있도록 기존에 보유한 교육콘텐츠를 과정·차수·성과지표가 포함된 패키지형 표준교육 프로그램(제안서 양식)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주타깃인 교육청과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기획, 개인 역량 의존도를 낮춘 교육회사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구조도 새로 만들었다.

A대표는 컨설팅을 거쳐 창업에 본격 뛰어들었고, 향후 온라인 교육회사로 확장해 운영하고, 구독자 81만명의 유튜브 '밥상차려주는남자'

로컬 푸드를 활용한 '고추다집이' 등의 반찬을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매출 증대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컨설팅은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으로 채널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강원도 원주 소재 회사인 점을 고려, 강원도산 들깨와 참깨를 활용한 신제품을 기획하도록 했다.

자사몰 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입점과 협력업체 발굴,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전략도 도왔다. 이에 입체적 마케팅 체계가 마련됐고, 프리미엄 기름 선물세트 등 제품 라인업이 재정비되면서 수익 구조가 강화됐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전국 800명의 소상공인에게

2100회에 걸쳐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어 이러한 컨설팅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회는 2024년 12월 발표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컨설팅 매뉴얼을 공동으로 도입하고 컨설팅센터도 확대 설치했다.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와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창업 전에 사업성을 점검하고, 창업 이후 초기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예비창업자 320명을 대상으로 상권분석부터 브랜딩, 법률, 기술 등 분야별로 컨설팅을 했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도 세무신고, 권리금·보증금 보호, 집기·시설 처분 등 실질적인 도

움을 줬다. 폐업 컨설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퇴로와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사업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4.3점(창업 95.2점, 폐업 93.7점)의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자금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 준비, 경영 안정, 폐업과 재기 과정까지 함께 살피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우수사례집을 배포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김치종균 저장 안정성 5배 높은 패키징 기술 개발

세계김치연구소, 기체조절포장 적용해 생균 유지력 향상

세계김치연구소는 정슬기 박사 연구팀이 동결건조 김치종균의 저장 안정성을 기존보다 5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기체조절포장(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기반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동결건조 과정과 저장·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김치종균의 생존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포장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체조절포장 기술을 김치종균 저장에 적용했다.

김치종균은 김치 발효를 주도하는 유산균

으로, 김치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최근 김치산업 현장에서는 제품 간 발효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종균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종균은 생산 과정에서 동결건조를 거치며 생리적·구조적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 저장·유통 과정에서도 생균 수가 감소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포장 내부에 남아 있는 수분과 산소는 세포막 지질 과산화와 단백질 변성 등 산화 손상을 유발해 종균의 생존율과 발효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냉장·냉

동 유통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 물류비와 에너지 사용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포장 내부의 이산화탄소·산소·질소 비율을 달리하며 종균 저장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산소를 최소화하고 이산화탄소 28%, 질소 72%를 조합한 환경에서 저장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의 MAP 조건을 적용한 종균의 반감기는 가습 저장 조건에서 74.9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포장 조건의 반감기인 13.4일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감기는 살아있는 균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종균 산업에서는 유통기한과 저장 안정성, 품질 보증 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기술은 저장 안정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김치 발효 과정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MAP을 적용한 종균은 발효 과정에서 전체 유산균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증식해 발효 안정성과 품질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슬기 박사는 "이번 연구는 동결건조 김치종균의 저장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도 기존 식품 포장 공정의 기계 혼합기와 포장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산업 현장 적용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종균 유통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은 물론 김치 발효 품질 안정화와 국내 발효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농업·식품 분야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F 6.2)'에 게재됐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국거래소 신입 공채 모집

내달 2일까지 원서접수...총 58명

한국거래소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해 신입직원 공개 채용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19일부터 다음달 2일 오후 3시까지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1·2차 면접 등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경영 24명, 경제 17명, 법학 4명, 통계 5명, IT 8명으로 총 58명의 일반직(정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학력이나 전공 제한은 없으며, 필기시험은 경영학, 경제학, 법학, 통계학, IT 등 5과목 중 선택해 응시가 가능하다.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나이, 학교, 가족관계 등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적용된다.

연세홍 기자 djwodyd0316@gwangnam.co.kr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강권 보호도, 해열진통제 등 구급약품 지원

전남도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건강권 보호와 현장 응급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구급약품 1200세트를 무료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수탁기관 전라남도사회 의료봉사단)' 중 구급약품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다.

언어 장벽과 낯선 지리적 환경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절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나 부상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급약품 세트는 외래 진료 질병 통계에 근거해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구충제, 알라지약 등 기본 의약품 8종으로 구성됐다. 8개 외국어 북용 설명서도 함께 첨부된다.

특히 전남도사회 의료봉사단, 나주시가족센터, 동신대학교 학생 등 60여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약품 포장을 직접 작업하며 지역 사회의 온정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현장 밀착형 행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급약품은 전남도 농업정책과를 통해 각 시·군 농정부서에 배부된다.

시·군 담당자들이 계절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와 속소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관리 수칙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도사회와 협력해 22개 시·군, 108개의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통역 지원 서비스를 병행해 외국인 주민의 언어장벽 해소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앞으로 수산 분야 계절근로자까지 확대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근무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광양경제청, 中 안후이성과학자기업가협회와 협약

오성실업 500만 달러 증설 투자도

광양경제청은 최근 중국 투자유치활동에서 업무협약과 투자협약 등 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와 하이퉁장성 허얼빈을 방문한 경제청은 첫 방문지인 안후이성에서 이차전지·ESS글로벌 기업인 고선테크와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안후이성과학자기업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후이성과학자기업가협회는 안후이성 대표

경제단체로 전력·자동차·에너지·식품 등 68개 업종에 6000여개 회원사와 1100여명의 전문학자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약에서 경제청과 안후이성과학자기업가협회는 협회 회원사 간 기업 교류, 한·중 기업 간 투자유치 상호 협력, 광양만권 투자 시 기업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 하이퉁장성 허얼빈에서는 4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갖고 광양만에 입주한 오성실업과 500만달러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이핀유업이 투자한 오성실업은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에 입주해 영유아 분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신규 고

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제청은 이번에 확보한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광양만권 현장 방문, 해외 진출이 있는 안후이성과학·기업가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충곤 경제청장은 "이번 중국 투자유치활동은 투자협력 기반을 다지고 소비재 분야에서 실질적인 투자협약 성과를 거둔 일차 활동이었다"며 "이번에 발굴한 에너지·첨단제조·소비재 분야 잠재 기업들이 실질적인 광양만권 투자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권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



전남농협, 친환경자원순환협의회 정기총회

13개 농축협 참여...친환경 자원순환 농업 활성화 도모

농협 전남본부는 18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친환경 자원순환 전남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남지역 13개 농축협 조합장이 참석해 2025년 사업결산을 보고받고, 2026년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과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품질 퇴비 생산 확대와 현장 중심 기술지도 강화, 유기질비료 자원사업의 지방 이양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친환경 자원순환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핵심 축"이라며 "전남농협이 중심이 돼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자원순환 전남협의회는 전남 지역 13개 농축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0만2000t 규모의 비료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 확대와 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카드뉴스

우편투표가 중간에 바뀌었기 되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 부정선거 의혹 # 팩트체크

사전투표지 위조 투입 의혹제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우편투표(회송용봉투)의 발송 도착 시간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이송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음.

팩트체크

"우편물류시스템상의 문제, 우편투표 회송용봉투는 모두 정상 도착"

- 우체국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회송용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면서 발송 또는 도착상황 입력을 뒤늦게 하는 등의 문제였던 것으로, 부정선거와는 전혀 무관

- 우편물 배달과정의 도착 및 발송정보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입력한 경우, 실제 배송일시로 입력하는 것 불가능
- **입력 당시의 일시 순으로 기재**
- **실제 배송경로와 다르게 표시되거나 배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로 나타나는 것**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